

다영푸드

아랍에미리트(UAE)로 훈제오리 수출



(주)다영푸드가 아랍에미리트로 훈제오리를 수출한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 다영푸드(대표이사 김대식)가 꾸준히 수출의 문턱을 두드리고 있다.

2019년 방글라데시 수출에 이어 다영푸드가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하는 훈제오리는 3월 8일 부산항을 출발했다. 금번 수출을 계기로 다영푸드는 수출대행업체인 삼일식품과 다양한 오리 가공품과 계육가공품에 대한 추가수출을 협의중에 있다.

다영푸드 김대식 대표는 “중동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 2020년 암운이 드리운 내수시장의 불확실성을 수출로 돌파하고자 한다. 금번 아랍에미리트수출이 수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팜덕

대구·경북지역 의료진 위해 영양 간편식 지원



FarmDuck

다향오리를 선보이고 있는 팜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에게 영양 간편식 총 8,000개를 지원했다.

팜덕은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영양 보충과 면역력에 좋은 삼계탕, 오리순살누룽지탕을 준비했다. 100% 국내산 삼계닭과 순살 오리 안심에 찹쌀, 수삼, 대추, 찹쌀 누룽지 등 국내산 재료로 속을 꽉 채워 맛과 영양 모두 갖춘 보양 간편식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대한영양사협회의 도움으로 진료 현장의 의료진, 근무자, 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팜덕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팜덕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